

개혁신학적 예배원리에 기초한 한국교회의 예배갱신

김 광 열*

목 차

I. 서 론	IV. 예배갱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
II. 왜 예배갱신이 있어야 하는가?	어져야 하는가?
III. 예배 갱신의 기초: 예배관과 예 배의 성경적 원리검토	V. 결 론

I. 서 론

21세기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온 주제들 중의 하나는 예배 갱신에 관한 것이다. 교회성장 정체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내일의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모든 이들은 그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키위한 노력들을 경주해왔다.

그 동안 여러 교회유관기관들을 통해서 지적되어온 교회회복의 대안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의 회복에 대한 지적¹⁾과 아

* 신학과 부교수

1) 김영한, “성장둔화에 대한 요인분석과 그 대안에 관한 논구”, p.30-35. 한국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대책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 1998) 김영한 교수는 한국교회 성장둔화의 요인을 크게 교회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하는데, 후자는 교회가 대사회적 의의를 상실한 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울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간신에 대한 지적이 포함되어었다. 전자의 경우, 한국교회 특히 보수교단에서는 그 동안 복음의 영향이 교회 안에서만 맴돌았고, 그 복음의 사회적 의미와 그 중요성을 사회와 국가 앞에 드러내는데 있어서, 그 한계성을 지녀왔음이 지적되었다. 그러한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평적인 차원의 삶 속에서의 교회회복을 지적한 것이었다면,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삶에서- 물론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인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회복을 이루기 위한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배갱신에 대한 교회적인 관심은 지속적으로 표출되어왔다. 예를들면, 한국복음주의 신학회에서는 지난 1998년 4월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21세기 교회와 예배의 간신”이라는 주제로 논문발표를 하고, 성경과 신학 제24권에 그 논문들을 개재하였다. 그 전에도 일찍이 1987년 10월과 1988년 4월에도, “예배와 신학”이라는 주제로, 각각 제10회와 11회 논문발표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시도한 바있었다. 월간지인 목회와 신학에서도 1995년 10월호에, 그리고 1997년 4월호에 찬양예배, 열린예배 등의 주제들을 특집으로 다루어, 전 교회적인 관심을 반영해주었다.

본교단에서도, 이미 교단 산하 전국 지교회들 속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소위 “열린예배”가 시도되어오고 있는 가운데, 1999년 5월 경기노회에서는 예배모범 연구위원회가 열린예배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한 연구보고서를 접수하여, 총회에 헌의키로 하였고, 총회신학부의 열린예배 연구위원회에서도 같은 달에 보고회를 가져, 열린예배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총회적인 입장과 대안 마련을 강구한 바도 있다.

또한 열린예배와 아울러, 예민한 논쟁의 일부가 되는 주제는, 복음송가의 사용에 대한 논의이다. 이에 대해서도 본교단은, 이미 교단산하 전국교회들 속에서 이미 확산되어 깊숙히, 그러나 혼란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복음송가들에 대한 정비작업을 위하여, 1997년도

가을 총회에서 복음송가 선별위원회를 조직하여 1년 동안 연구케한 후, 1998년 가을 총회에서 그 연구결과물을 수용키로 하였고, 금년 10월에는 그 위원회가 선별한 내용으로 본교단의 복음송가집을 출간하였다.²⁾ 그런데, 필자도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동안 함께 연구, 토의하면서, 모든 위원들과 함께 절실하게 느꼈던 바는, 단순히 복음송가집을 편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와 복음송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내고 분석하며 정립하는 작업이었다.

본 보고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성장정체라는 어두운 늪의 수렁에서 벗어나되, 그 회복의 열쇠들 중의 하나가 “예배회복”에서 찾아질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서, 과연 오늘의 한국교회의 예배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어떤 점들에서부터 그 회복의 작업이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되, 특히 개혁신학적 예배원리에 입각한 예배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려 한다.

II. 왜 예배갱신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의 예배의 문제점들)

오늘의 한국교회 속에서 진행되는 예배가 왜 갱신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오늘의 예배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이해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 물론, 개혁교회란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오늘 우리들이 교회 속에서 시행하는 예배의 모습과 행위들이 완전한 모습과 행동들이 아닌 한,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볼 때 부족한 점이 드러나게 되는 한, 개혁을 위한 행진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

이제, 그러한 원론적인 지적 아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배 갱신의

2) 「새복음성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1999

이유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어떠한 점에서 성경적이지 못한가를 논의하는 가운데 드러나게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세계 속에서 놀라울만한 급성장을 기록하며, 세계 교회들의 이목을 끌고있는 것이 사실이나, –마치 한국경제성장이 놀라울 만한 수치를 기록하였으면서도, 그 내실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서 IMF라는 경제난국을 맞이했었듯이– 그 성장된 교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좀 더 성경적으로 성숙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³⁾ 물론 그러한 성숙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 속에는 미성숙된 예배의 모습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예배개신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떤 점들이 오늘의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할 부분들이며, 그것들은 어떠한 점에서 성경의 조명을 받아야 하고, 또 예배 개신의 이유로서 제시되야할 것인가? 그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지적들을 제시해볼 수 있다.

ㄱ.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관이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되어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관이란 주일 공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간주하려는 태도를 가져오게 한다. 그러한 방식의 예배관은 신자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자 칼빈이 외쳤던 Coram Deo 정신을 제한적으로만 수용하게 하며, 주일만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듦으로서, 소위 ‘성속이원론’적 신앙생활로 나아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칼빈의 Coram Deo 정신이란, 주일날 종교적 생활을 할 때에만 적용되는 정신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

3) 수많은 사례들이 지적될 수 있으나, 최근의 두드러진 예로는, ‘신동아그룹 웃로비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위중한 이들의 모습이리라. 그들도 어느 한 성경공부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아프기만 하다.

역들 속에서, 날마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예배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단순한 의식적 행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할 수 있다면,⁴⁾ Coram Deo정신 아래서 신자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의 모든 삶을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롬 12:1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와같이, 신약의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 자신의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사인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구약에서 죄사함의 문제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의 의미는 아니다. 신자의 구원을 위한 죄사함의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과 마음과 전 생애를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사회 속에서 발생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의 수 많은 비윤리적인 부정과 부패의 사건들 배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예배관이 바로 ‘삶으로의 드려져야 할 예배’에 대한 이해로 시급히 전환되어야함을, 그래서 협의의 예배와 함께 광의의 예배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야함을 강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ㄴ. 기복신앙적인 예배의 극복이 요청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문제점들 중의 하나가 기복신앙적인 요소라고 할 때, 그것은 또한 현재의 예배관 속에는 그러한 신앙을 권장하는 요소들이 뒤엉켜있는 모습들이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케한다. 무조건적으로 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 육신의 질병이 다 낫고, 자녀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대학입시에 합격하며, 회사에서 진급하는 것만이 신앙의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방식의 메시지와 함

4) 정일웅,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와 실천신학」(여수론, 1999) p.280.

께 이루어지는 신자의 예배자세와 접근방식은 신자의 신앙생활은 한 쪽 방향으로만 왜곡되어 형성되어가도록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⁵⁾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인 ‘기도’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문제점은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자녀의 입시를 위한 기도, 사업에 성공을 위한 기도, 질병이 낫기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가득채워지고 있으나,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복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밖에 되지 못하는가?라는 심각한 물음이 주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신자의 예배란 고통과 환란 속에서도,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 분의 위엄과 영광 앞에 엎드리고 경배드리는 행위가 되어야한다는 성경적 예배의 원래적인 모습의 회복이 요청되는 상황인 것이다.

ㄷ. 개인주의적이고 개교회주의적인 예배관의 극복이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수술되어야 할 최대의 암적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이기주의적인 생활 태도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우리 한국사회도 이기주의적인 정책결정과 생활태도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신자의 삶 속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되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세의 성자 John of the Cross가 “세속적 이기주의는 중생자에게도 영적 형태의 가면을 쓰고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는 영적 형태의 교만, 질투, 탐욕 등을 발생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듯

5) *Ibid.*, 정일웅 p.286

이,⁶⁾ 세속적 이기주의는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종교적 이기주의 혹은 자기 중심적 영성을 낳게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체된 이유들 중의 하나로, ‘잘못된 개교회 중심주의’ 목회를 지적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개교회 중심적인 예배관도 지적해야 한다. 우리의 예배는 어느 한 지역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그들 만이 독점하는 하늘과의 비밀한 통로가 아니라, 하늘의 천만 성도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사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히 12:22-24) 예배라는 ‘예배의 공동성과 연합성’의 회복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⁷⁾

ㄹ. 예배신학과 예배의 성경적인 원리 확립의 과제가 남아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같은, 한국교회에서의 다양한 예배관에서의 문제점들은 결국 한가지 요점으로 향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 한국교회의 예배 속에는 성경적 예배의 원리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점이다. 예배신학 정립의 과제가 가장 근본적인 숙제로 남는다는 점이다. 서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지난 본교단 총회에서 우리는 “새복음성가집”을 출간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여러 복음 송가들을 추려서 편집하는 작업만이 아니라, 그러한 편집을 위한 원리, 예배신학의 원리를 세우는 일인 것이다.

한국교회는 90년대에 성장정체라는 비보(悲報)가 들려오기 시작

6) 참고, “21세기 총신의 신학과 교육방향” 「21세기 총신」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8)

7) 정일웅, p.286. 그 밖에도 정교수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예배 속에서 신비주의자들의 범악마주의(Pan-satanism)적인 요소로 인하여, 모든 질병을 귀신의 역사라고 몰아붙이는 잘못된 모습들, 성장일변도의 교회성장학에 의해 영향을 입는 모습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카톨릭의 예전주의적 예배방식으로부터 말씀 중심의 예배에로의 회복을 시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재정해주신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의 정당성이 약화되거나 그로 인하여 성만찬의 시행이 축소되어진 점들을 문제점들로서 지적하였다.

하면서부터, 그 돌파구 중의 하나로 예배의 간신이라는 항목을 채택하였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유행하는 예배의 새로운 형태들을 무분별하게 도입해오기 시작했다. 90년대 초기에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의 예배형태를 통하여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 하였으며, 90년대 중반에는 “빈야드 예배”⁸⁾ 그리고 90년대 후반에는 “열린예배”라는 새로운 예배형태들을 도입하여 새바람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새로운 방식의 예배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도입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닌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개혁신학의 틀 안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예배신학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아무런 원리 없는 단순한 모방은 매우 위험한 시도가 되고만다는 점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원칙이나 신학적 기초 없이 무분별하게 외국의 유행하는 예배형태를 도입하거나, 그것을 통한 예배갱신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위험한 예배의 모습을 낳게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간신을 말하기 전에, 먼저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순서인 것이다. 성경 속에서 예배의 개념과 방식 및 의미에 대한 바른 원리들을 확립한 후에야,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고 풍성한 의미를 지닌 예배갱신에 대한 논의를 바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⁹⁾

III. 예배 간신의 기초: 예배관과 예배의 성경적 원리 검토

따라서, 본고에서 우리는 예배갱신을 위한 작업의 내용을 ‘개혁

8) 빈야드 예배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위해서는, 정일웅의 위의 책 p.289-313을 참고하라.

9) 김광열, “권호덕 교수의 ‘안식의 시각으로 본 예배’에 대한 논평” 성경과 신학 제24권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p.179이하.

주의 예배관의 확립과 예배의 원리 확립'과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려 한다.

1) 예배란 무엇인가? (성경적 예배관의 정립)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께서 존귀를 받으실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존귀와 영광을 그 분께 돌려드리는 행위인 것이다.¹⁰⁾ 그것은 일차적으로 우리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분을 위한 행위인 것이다. Carson박사의 저서의 제목을 따라 표현한다면, 예배란 '존경과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¹¹⁾

예배란 일차적으로 자기보다 우월한 어떤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경"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단순한 명사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며, 우리가 참여하는 무엇인 것이다. 구약의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수행해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과 같이 "노동 혹은 섬김"과 같은 사역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¹²⁾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ㄱ. 성경적 예배관이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예배관이다.

성경적 예배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은 그것이 언약의 주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되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연과 역사의 모든 과정들과 대상들을 통치하시며, 그 통치하심 속에서 그 분은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권위로 말씀하시고, 만민 중에 한 백성을 택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예배 가운데서 드러내주어야 한

10) J.Frame, *Worship in Spirit and Truth*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96) p.1.

11) Donald A. Carson, ed., *Worship: Adoration and Action* (Grand Rapids: Baker, 1993)

12) Robert Webber, *Worship is Verb* (Waco, Tex.: Word, 1987)

다는 것이다.¹³⁾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 즉 피조계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사실로 인해 그 분께 경배와 찬송을 드린다는 것이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이나 섭리, 그리고 구속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능하신 행동”들에 대한 찬양이었기 때문이다.(출 15:1-18; 시 104; 습 3:17; 계 15:3-4)

또한 예배 안에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인하여 경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의 거룩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경배드린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먼저는 창조와 섭리 안에서 행하신 그 분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지만 (1-6절), 그 다음에는 그의 율법과 법도의 완전함을 인하여 찬양드린다.(7-11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의 권능과 위엄으로 압도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성경봉독과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게 되는 것이다.(행 15:21; 딤전 4:13; 골 4:16)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분은 언약의 주님으로서 예배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에게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분은 성막과 성전에서(출 20:24) 그의 백성들과 만나셨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고 기쁨에 차서 소리쳤다.(습 3:17) 신약의 예배 속에서는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영향을 주어서, 엎드리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외치게되기도 하였던 것이다.(고전 14:25)

13) 여기에서의 논지는 J. Frame이 그의 저서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87)에서 하나님을 “언약의 주”的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발전시킨 통치(control), 권위(authority), 그리고 임재(presence)의 3관점을 따르고 있다.

이처럼, 참된 예배란 언약의 주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영광돌리며, 그 분의 권위있는 말씀에 대해 경배하며, 언약의 주되신 그 분과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으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점이다.

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표현되는 예배관이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설명만으로는 성경적 예배관의 온전한 서술이 될 수 없다. 성경적 예배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시행 속에서 진행되어온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되어서 이해되어지는 행위인 것이다.¹⁴⁾

물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를 누렸었다. 에덴은 일종의 성전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과 만나며, 그 분의 창조의 능하신 사역들을 기뻐하며, 그 분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였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분의 임재를 느끼며 지냈었으리라. 그러나, 타락 후에 그들은 에덴 성전에서 쫓겨났으며,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예배의 새로운 길을 확보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과거와 같은 예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이해 속에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분이 행하신 능하신 역사들에 대한 이해 속에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성경적인 참된 예배는 구원의 복음이 표현되는 예배이어야 한다.

14) Robert Webber, 「예배학」 김지찬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7) p.14.

에덴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죄와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까지도 전해준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식은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고전 11:26) 이처럼, 예배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죄와 용서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 사역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예배이어야 한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된 소식이 중심적 요소가 되도록 해야한다.

ㄷ. 개혁주의 예배란 삼위일체적 구조의 예배관이다.

그러나, 성경적 예배에 대한 온전한 설명은 거기에서 멈춰서는 않된다. 위에서의 설명했던 바와 같이 신자의 예배는 구원의 계획과 실행, 그리고 그 적용 속에서 이해되고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때, 결국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¹⁵⁾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분의 정하신 때와 방법대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그가 이루신 객관적인 구속사역은 결국 그가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적용되고 성취되기 때문이다.¹⁶⁾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신자들의 마음에 적용시키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고, 은사들로 채워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강화시키시고 또 그리스도를 중거토록 하신다.¹⁷⁾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4:23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

15) Webber, 예배학 p.16.

16) 출처, 「장로교 기본교리」(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1998) p.179이하.

17) Ibid., p.190-194.

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된다. 거기에 서 ‘진정’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Truth, 즉 진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복음의 진리, 즉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가리키며 (요 1:17; 14:6), ‘신령’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Spirit으로서 진리의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다.(요 14:17; 15:26)

결국,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삼위일체적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 구원의 역사를 인지하며 드리는 예배임을 의미하고 있다. 참된 예배란 성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른다.(마 18:20; 요 14:13; 16:24) 그 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고전 1:24),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막 10:45; 요 1:29),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이다.(히 4:15-16)¹⁸⁾

참된 예배란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그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롬 8:9),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며 (롬 8:16),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이심도 깨닫게하신다(살전 1:5).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듯이,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롬 8:26-27).

이렇게 볼 때, 신구약 계시의 풍성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참된 예배란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되,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다. 즉, 참된 성경적 예배란 삼위일체적 구조를 지닌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ㄹ.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예배관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의 제II항에서 논의했던 ‘예배의 문제점들’에

18) *Ibid.*, p.169.

19) Frame, *Worship* p.6-7.

서 지적한 내용들을 비추어, 성경적 예배관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려 한다.

예배의 행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물론, 예배란 위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삼위일체적 구조 속에서 그 분을 기쁘게해드리기 위한 “수직적인” 성격을 지닌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초점은 그 분에게로 맞추어지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그러한 “수직적인” 성격에 대한 강조가 인간적인 필요를 무시해도 된다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희생제물을 요구하는 이방의 몰록(Moloch)과 같은 신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의 예배가 인간 중심의 예배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마 22:37-40; 막 7:9-13; 요일 4:20-21)

그러므로, 예배 속에서 신자는 너무나 하나님께만 몰입되어서 서로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예를들면, 예배자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무시해서는 안된다.(사 1:10-17; 고전 11:17-34; 약 2:1-7) 더욱이 예배란 교육적 기능을 지니는데,²⁰⁾ 그것은 예배의 수평적 차원의 성격을 강조해준다. 신앙적 교화(edify)적 기능이란,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깨달음을 주는 교육적 기능을 말하는데, 고전 14장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말하기’ 보다 이해될 수 있는 예언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고전 14:25-26에서 바울은 불신자들조차도 그 회중 가운데 들어와, 그 진행되는 일들을 이해하여, 그 결과로 그들도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예배가

20) *Ibid.*, p.7-8.

되어야함을 말해주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때, 예배란 수직적인 초점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초점도 잊지 않아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교육적이어야 하며 또 전도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전 14:25-26) 후자의 내용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지는 않을지도, 예배를 통해서 교육과 전도의 열매들이 주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예배가 오락적이어서는 안될지라도,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서로 나누어지고, 또 교육적 기능이 수행되는 수평적인 차원의 요소가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 협의의 예배와 함께 광의의 예배가 포함되는 예배관이다.

위의 II.항에서 “오늘의 예배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때, 언급한 바와같이, 성경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예배와 아울러,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를 말한다. 롬 12:1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신자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강조가 공식적인 교회모임의 예배를 무시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의 신자의 삶으로의 예배가 포함되는 예배관이 회복되어야 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동정과 공의에 대한 관심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를 정죄하셨다.(사 1:10-17; 미 6:6-8) 호세아 6:6에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라기 보다는,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포함되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신약에서도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일까지 포함되는 예배가 제시된다.(히 13:16; 빌 4:18) 야고보서 1:26-27의 말씀과 같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경건으로 예배드리는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적 예배모임의 중요성을 무시함이 없이,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분께 찬송과 영광이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2) 예배의 개혁신학적 원리.

다음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바른 방법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자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개인의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셨으며,(창 4:5)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명하지 않은 불을 분향함으로’ 그들을 징벌하셨다.(삼상 13:7-14; 삼하 6:6-7)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그 분을 예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일 것이다. 특히 십계명에도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전통적으로 취급되는 “규정하는 원리(regulative principle)”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입장에 대해서 논의하려 한다.

“규정하는 원리”에 대한 로마 카톨릭,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회의 해석은 ‘성경이 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배 가운데서 아무 것이라도 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²¹⁾ 그러나, 개혁교회는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은 금지한다’는 좀 더 강력한 해석을 취한다.²²⁾ 그것은 하나

21) 이러한 입장은 성경의 가르침을, 예배에 있어서 단지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통제하려는 방식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방식은 단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관점은 성경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상의 중요성을 지닐 수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Frame, *Worship* p.38.

22) 이러한 개혁교회의 입장은 성경을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배의 원리가 되도록 하려는 입장인데,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 1절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정해주셨다.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망상이나 의향에 따라서 예배하거나, 또는 어떤 가전적인 물질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사탄의 지시에 따라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시된 자기의 뜻에만 따라서 예배하도록 정하셨다”

님의 말씀이 신자의 모든 삶에 있어서 원리와 기준이 된다는 개혁신학적 강조점을, 신자의 예배의 영역에서도 일관성있게 적용시키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개혁주의의 예배관의 기본원리는 그 예배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이, 성경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명령들에 기초되는 것들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원리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에서 행해지는 행위들 가운데 그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인간이 생각하고 결정해야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들면, 주일날 어디에서 모일 것인가? 혹은 설교는 얼마나 길게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들인데, 성경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연의 도리와 신자의 사려분별을 통해서” 결정되야한다고 말한다.²³⁾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서, 예배의 “여러가지 형식”에 해당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느 것들도 순전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²⁴⁾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어느 행위들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립적인 것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부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회의

2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 6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며, 교회정치나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예배와 교회정치는 언제든지 지켜야 할 그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자연의 도리와 신자의 사려분별을 통해서 조직되어야 한다”.

24) 김광열, 장로교 기본교리 p.28-29. 이 내용은 개혁신앙의 특징 중 ‘하나님의 주권의 전포괄성’과 관련된 논점이다.

에서 제안된 이분법적인 구별방식의 한계성²⁵⁾을 극복하기 위하여, J.Frame이 제안하는 “적용(application)”의 원리를 예배의 영역에 도입해볼 수 있다.²⁶⁾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들은 일반적인 명령들에서부터 좀 더 구체적인 명령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고전 10:31을, 후자는 고전 11:24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각 행위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온전히 찾아 – 심지어 예배의 “여러가지 형식”과 “종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들에까지라도 – 적용함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된다는 것이다.²⁷⁾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신자는 자신의 성화된 지혜를 가지고 – 물론 그 적용도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 경건하게 적용되도록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나 금해져야 한다”는 개혁교회의 규정하는 원리에 충실하게, 즉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접근 원리는 개혁신학의 전통 안에서 수용되어온 “규정하는 원리”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온전히 성경의 가르침으로 제한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적용”的 개념을 활용함으로서 상당한 영역에서

25)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제안된 방법은, 신자의 예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식’에 해당되는 것들은 중립적인 영역의 것들로서, ‘자연의 도리와 신자의 사려분별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절; 위의 각 주 #22 참고.

26) 여기에서, 우리는 J. Frame이 그의 저서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87)에서 논의하고 있는 “적용”的 개념을 말하려는 것이다.

27) J. Frame, *Worship in Spirit and Truth* p.40-43.

자유를 허락해줄 수 있게 된다.²⁸⁾ 물론 그러한 자유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신자의 창조적인 판단력이 사용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IV. 예배갱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규정하는 원리에 대한 개혁신학적 관점을 모든 예배의 요소들에 온전히 적용시킴으로서-

위에서 제시한 “규정하는 원리”에 대한 개혁신학적 관점과 “적용”的 원리에 동의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예배의 모든 요소들 속에 대입해보는 작업이 남게된다. 그러나,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들은 금한다’는 개혁신학의 ‘규정하는 원리’를 따라, 예배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닐 것이다. 특히 위에서 제시한 J.Frame의 “적용”的 원리를 따라 논의하게될 때,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모든 실제적인 적용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항목에서는, 그러한 개혁신학의 관점을 따라, 예배의 요소들 중 몇 가지 중요한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제시해보려 한다. 그것은 본 시도가 비록 잠정적인 (tentative) 시도일지라도,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개혁주의 예배신학에 기초한 예배의 요소들을 확립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한국교회 예배갱신의 기초를 놓을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 1) 성경봉독...회당과 신약의 교회 안에서 성경이 공적으로 읽혀졌던 것은 사실이다.(눅 4:17-19; 행 15:21; 딤전 4:13). 또한 바울의 편지들도 교회 모임들 속에서 자주 읽혀졌던 것이 사실인데,(골

28) Frame, *Worship* p.45-46.

4:16; 살전 5:27) 그의 편지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었었다.(살후 3:14; 고전 14:37) 따라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것은 예배의 사건으로서의 충분한 성경적 근거를 지니게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적인 봉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을 만들어주며, 그 말씀이 읽혀질 때, 하나님은 그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2) 설교...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 읽혀질 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쳐질 것을 원하신다.(느 8:8; 뉴 4:20; 행 20:7)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설득력있게 증거되는 행위로서, 단순한 말씀봉독보다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따라서, 이 요소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의 절정을”²⁹⁾ 이루는 순간이 될 것이다.

3) 기도와 찬송...공동기도가 공적 예배의 한 요소라는 점은 성경에서 명백히 나타난 사실들 중의 하나이다.(행 2:42; 고전 14:16) 참회의 기도와 용서의 기도, 설교자를 위한 기도와 예배 자체를 위한 기도, 감사의 기도와 목회적 중보의 기도 등 다양한 방식의 기도들이 포함될 수 있다. 찬송도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바들 중의 하나이다.(대상 16:9; 고전 14:26; 앱 5:19-20;골 3:16) 찬송을 예배의 요소라고 보지 않는 견해³⁰⁾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청교도들이 정의한 방식대로의 예배요소가 되든 아니 되든 상관없이- 어째든 찬송도- 그것이

29) Ibid., 정일웅,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p.358.

30) Frame의 주장인데, 그는 청교도들이 정의한 방식으로 볼 때에는, 찬송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예배의 공식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찬송은 다른 많은 것들 즉 기도, 가르침, 축복, 교제 등과 같은 항목들을 수행토록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Ibid., Frame, p.57.

개회찬송이든 속죄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이든, 아니면 순종의 결심을 표하는 찬송이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4) 신앙고백... 이것은 신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인데, 사실상 우리는 이미 교회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공적 예배는 하나의 고백적 성격을 지닌다. 성경은 종종 공적 예배의 상황 속에서 고백의 행위를 언급해준다.(왕상 8:33-35; 대하 6:24-26; 30:22) 바울도 디모데가 “많은 중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행한 사실을 언급한다(딤전 6:12-13).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몸된 신자들로서 공적 예배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예배에 적합한 일이 되는 것이다.

5) 성례... 신약의 성도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함께 성만찬을 지켰음이 분명하다.(고전 11:17-34) 개혁자들의 가르침과 같이, 성례란 ‘가시적인 말씀’(Visible Word)로서, 의미전달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성을 확립해준다. 성경봉독과 설교는 청각을 통한 의미전달방법이라면, 성례는 미각, 후각, 촉각 등을 통하여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³¹⁾

바울은 이 성례를 예수님의 피로 인한 새 언약(11:25), 주의 죽음의 선포(26절),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몸에 ‘참예함’ 등으로(10:16) 설명한 것은, 이 성만찬이 공적 예배의 일부가 됨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정해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그리고 또 충분하게 수행함으로서, 예배의 갱신은 더욱 가속될 수 있는 것이다.

31) *Ibid.*, 정일옹, p.343.

6) 현금...신약에서의 현금이란 구약에서 드려졌던 제물의 성격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일회적인 희생제물로서 이미 드려졌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나 그것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의 제사인 것이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갈 2:10; 고전 9:3-12) 현금드린 사례를 제시해주며, 바울은 구체적으로 교회 모임의 첫날, 즉 그 주간의 첫째날에 현금할 것을 요구했다(고전 16:1-2). 그는 또한 현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빌 4:18) 따라서, 현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예배시간에 행해질 수 있는 행위인 것이다.

7) 광고...위의 III항의 1)의 ‘ㄹ’ 항목에서 지적하였듯이, 예배란 수직적인 측면과 함께 수평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배 속에서 신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관심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인 예배자들이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수용하고 교제하게 된다. 그와같은 수평적인 차원의 내용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행위’ 속에서, 설교와 가르침 속에서, 서로를 권면하는 가운데(히 10:24-25), 성례의 시행 속에서(고전 10:14-17; 11:17-34),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현금의 행위들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다.³²⁾

광고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예배의 적합한 요소가 된다. 예배 속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교제와 사랑을 격려하며, 그러한 일들에 대해 서로 알려주는 것이 광고이기 때문이다. 광고가 때로는 부적절한 표현이나 방식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르게 시행될 때, 성도를 위한 가르침의 사역을 비롯하여 지체로서의 공동적인 참여와 책임의 일들을 알려주게됨으로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되는 것이다.

32) *Ibid.*, Frame, Worship p.59.

8) 축도...위의 제1항에서 지적하였듯이, 바울의 편지들이 교회의 모임들 속에서 읽혀졌다는 사실로부터, 축도의 내용이(고후 13:13) 예배의 한 부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행구인 민수기 6:24-27의 경우에서도, 그러한 축복문들은, 하나님께서 그 회중들로 그의 백성을 삼으시며, 그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이므로, 공식적인 예배에 적합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9) 그 밖의 부분들...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 취급하지는 못하였으나, 위에서 지적된 내용들 외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다른 많은 행위들도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박수치는 것, 손을 드는 것, 합창찬송이나 악기연주, 회중의 화답, 춤추기 등의 행위들도 성경 속에서 언급되며, 오늘의 예배 속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레10: 1-3) 아닌지에 대한 개혁주의 예배신학적인 검토가, 규정하는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예배 속에서만 진정한 예배갱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V. 결론

본 보고서에서 필자는 예배가 어떻게 회중들에게 좀 더 의미있는 경험으로 주어질 수 있을까?의 문제나, 예배가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예배갱신을 위한 근본적인 작업은 예배의 방법론적인 차원의 개선에서 주어진다기 보다는, 오히려 예배의 신학적 원리를 바로 세움으로서 출발되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예배를 진행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들-열린예배나 빈야드예배의 문제들-과 같은 것들은, 그것이 우선적으로 개혁주의 예배신학의 원리

와 기초를 바로 세우고 난 후에야 올바르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예배에 대한 개혁신학의 “규정하는 원리”란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은 금한다’는 원리로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이 신자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기준과 규범이 된다는 개혁신학의 강조점을 예배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려한 것이다.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는 예배의 요소들 중의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성경적인 근거와 명령들을 추적해보았다.

그러나, 각 항목들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주신 일반적인 가르침들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명령들까지 다 찾아보고, 또 좀 더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한 가르침들까지도 온전히 적용해보는 일은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대로의 행위임을 확인케될 것이며, 만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인간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시행되어온 부분들이 있을 때, 말씀에 기초하여 분명하게 거부하고 제거하는 작업도 주저하지 말아야한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전포괄성을 강조하는 개혁(Reformed) 신앙의 전통³³⁾ 안에 확고히 서는 방법이 될 것이며, 그러한 접근방식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갱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³⁴⁾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에 기초한 예배신학적 원리를 바르게 세워 가게될 때, 우리는 예배갱신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것이다.

33) 김광열, “기독교 윤리의 기초” 「총신대 교수논문집 제13호」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4.) p.47 이하.

34) 역사적으로,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내세웠던 ‘규정하는 원리’란, 당시의 국가교회가 그들에게 성경이 명하지 않은 의식들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성경적인 대응을 했던 상황에서 제시되었던 것이었다. Frame, *Worship* p.43-44.

참 고 문 헌

1. 김광열, “권호덕 교수의 ‘안식의 시각에서 본 예배’에 대한 논평” 성경과 신학 제24권,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1998.
2. _____. “기독교윤리의 기초” 「총신대 교수논문집」 제13호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4.)
3. _____. “21세기 총신의 신학과 교육방향” 「21세기 총신」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8)
4. _____. 「장로교 기본교리」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1998)
5. 김영한, “성장둔화에 대한 요인분석과 그 대안에 관한 논구”, 한국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대책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 1998
6. 김의환,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7. 정일웅,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여수문, 1999)
8. Carson, D.A. ed. *Worship: Adoration and Action*, Baker, 1993
9. Frame, J. *Worship in Spirit and Truth*,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96)
10. _____.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87)
11. Webber, R. *Worship is Verb* Waco, (Tex: Word, 1987)
12. 새복음성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복음성가 선별위원회, 총회출판부, 1999